

# 『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A Study on the *Jeompiljaejib* Edition

김 윤 수 (Kim, Yun-Su) \*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6. 「점필재집」의 재중간본-기축본 |
| 2. 「점필재집」 판본연구사 소고           | 7. 「점필재집」의 삼중간본-기사본 |
| 3. 「점필재집」의 초간본 문제            | 8. 맺음말              |
| 4. 조의제문과 무오사화<br>「점필재집」 휘판사건 | <참고문헌>              |
| 5. 「점필재집」의 중간본과<br>회당고-경진본   |                     |

##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 초기 사림파의 종장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문집인 『점필재집』의 판본에 대하여 연구사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점필재집』의 판본과는 별개로 점필재 청년 시대의 시작품만을 수록한 회당고에 대하여도 성격을 규명하였다.

점필재의 단종에 대한 忠憤의식, 사육신 계승 정신이 담긴 조의제문을 문집 첫머리에 수록한 것이 발みが 되어 시문집 초록본이 간행되자마자 무오사화가 일어나 소각 처분되어 초간본은 실전되었다.

이후 중간 경진본, 재중간 기축본, 삼중간 기사본이 있고 다수의 보판본이 사이사이 존재하여 크게는 4차례, 작게는 8차례 정도 판본이 간행된 것이다.

要語 : 佔畢齋集, 金宗直, 梅堂稿, 弔義帝文

\*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원장(study@insan.com)

접수일: 2006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06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ABSTRACT>

This is about integral research of *Jeompiljaejib* Edition, which mainly focused on the proposed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approach to make research of the xylographic book by Kim Jongjik(1431 ~1492), *Jeompiljaejib* who was the head of the Sarim school in the beginning of Josun dynasty.

Apart from the edition above, there is a additional close examin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Hoidanggo which is a collection of the poems by young *Jeompiljaejib*.

The first edition was burnt away amid Muosahwa, whose reason was that as the beginning it had the Jouijemun including the faithful feeling toward the king Danjong and succession spirit of Sayouksin.

Thereafter, Kyeongjinbon as the second one appeared, successively followed Kichukbon and Keesabon. And there are a few more xylographic books found at intervals which were published around four times to eight times.

Key words : *Jeompiljaejib*, Kim Jong Jik, Hoidanggo, Jouijemun

K C I

## 1. 머리말

공자의 제자에 四科 十哲이 있다. 德行에는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언어에는 宰我·子貢, 政事에는 冉有·季路, 문학에는 子游·子夏가 뛰어나다고 하였다.<sup>1)</sup> 조선 초기의 대학자로 국가 동량지재를 배출한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은 성리학에 한훤당 김굉필·일두 정여창, 문장에 매계 조위·탁영 김일손, 수학에 허암 정희량, 의약서화에 용재 이종준, 시학에 읍취헌 박은·(또는 뇌계 유희인\*필자 보충), 처사류에 추강 남효온·소충 홍유손 등이 손꼽히니 六科 十哲이라고 불릴 만하다.

점필재는 수많은 현인 제자들을 양성하였지만 자신의 유문인 조의제문으로 인해 일망타진되는 사후 불행을 겪게 되었다. 아울러 자신의 문집인 점필재집의 판본은 소각처분되고 책판도 훼손되는 금서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누구나 겪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책판이 소실되어 중간하게 되었고 세월에 따라, 가문의 사건에 따라 다시 중간하게 되어 여러 판본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필재집」 판본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제대로 연구된 것도 있고 덜 연구된 것도 있어 종합하여 바르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 2. 「점필재집」판본 연구사 소고

조선시대는 활자를 주성하면 주성한 해의 간지를 붙여 활자명을 삼았다. 판본도 책판을 조성한 해의 간지를 붙여 판본명을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7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이조명현집」<sup>2)</sup>로 「점필재집」을 영인하였는데 임형택이 간략히 해제를 썼다. 여기서 아직 간지명 판본명이 없고 판본의 종류에 대한 서술이 없고 영인 藏本에 대해 언급하였다. 1988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문집총간」<sup>12)</sup>로 「점필재집」을 영인하였는데 대본을 소개한 범례에서는

1) 「論語」先進篇.

1520년 선산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의 교정, 보판한 후쇄본이라고만 서술하였다. 이에 대한 해제는 1991년 『한국문집총간해제』<sup>1)</sup>로 간행된 책에 수록되어 있다. 해제를 쓴 오세옥은 간지명 판본명을 쓰지 않고 간행연도만 다음과 같이 약술하였다.

“1520년에 康仲珍이 남은 殘稿를 모아 嵩善(善山)에서 邑宰의 도움을 받아 간행하였다. 이 초간본은 25권 8책의 목판본으로, 남곤의 序와 〈弔義帝文〉을 권수에 수록하고 詩集 13권·本集 2권으로 간행하였다.(\*13권은 23권의 오자이고, 조의제문이 수록되었다는 것도 오류임)

초간본은 임진왜란 때 거의 유실되어 전하지 않다가 1649년에 경상감사 李曼이 간행하였으며 이후 1789년(己酉)에는 李獻慶의 序를 붙여 간행하였다. 또 1892년에는 宋秉璿의 跋이 첨부되어 간행되고, 1917년에는 金啓鉉 등에 의해 大邱에서 간행되었다. 이는 모두 초간본을 校訂·補板한 後刷本이다.”<sup>2)</sup>

간행연도를 판본의 종류로 본다면 1520년 초간본과 1649년본, 1789년본, 1892년본, 1917년본의 5본이 있는 것이다. 김계현의 대구 간본은 실상 김계현이 간행한 것이 아니고 대구의 방각본업자 출신 在田堂書鋪 주인 金基鴻이 교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오세옥은 해제에서 “본서의 저본은 1520년 간행된 초간본을 교정·보판한 후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저본은 무슨 본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앞서 1990년 6월에 간행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김광수의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이원주)으로 “점필재선생문집연구”가 있는데 판본 종류를 잘 연구하여 분류해 놓았다. 여기에선 판본 종류를 정사본(1497), 경진본(1520), 기축본(1649), 기사본(1869), 임진본(1892), 무인본(1938)으로 분류하고 비교적 자세히 해당 판본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이 논문은 1991년 8월에 간행된 계명한문학회연구회의 『한문학연구』제7집에 전재되었다. 김광수의 연구에 의하면 민족문화추진회 간행본 『점필재집』은 기축본이니, 저본이 분명해진 것이다.

2) 吳世玉, “佔畢齋集解題,” 『韓國文集叢刊解題』제1집(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1)

1996년에 계명한문학회에서 이원주교수 소장의 경진본 등을 영인하여 「점필재선생전서」를 간행하고 권두에 해제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김광수의 주장대로 판본을 경진본(1520), 기축본(1649), 기사본(1869), 임진본(1892), 무인본(1938)으로 분류하고 그 논문을 요약, 전재하는 방식으로 해당 판본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1997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국역점필재집」에는 오세옥의 해제가 아닌 강대걸의 새 해제가 실려 있다. 이 해제에서 「점필재집」의 초간본을 새롭게 논해 문집은 1495년에, 시집은 1497년에 간행된 것으로 서술하고 1520년의 판본은 중간본(경진본)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기축본(1649), 기사본(1869), 임진본(1892)을 서술하고 1938년 김태진의 후쇄본을 서술하였다.

2006년에 9월의 「서지학연구」34집에 실린 옥영정의 ‘책판목록을 통해본 조선시대 善山지역의 목판인쇄문화 연구’에선 선산의 책판기록으로 처음 등장하는 「점필재집」의 판본에 대하여 연산군 3년(1497)의 정석견 초기간본, 중종 15년(1520) 강중진의 선산 간본, 인조 27년(1649) 李旻의 밀양 예림서원 간본, 金植에 의하여 간행된 고종 6년(1869)본 등으로 간략히 서술하였다.

위의 각 서술을 종합하면 「점필재집」의 판본은 초간본, 경진본(1520, 南袞序), 기축본(1649, 李旻刻), 기유본(1789, 李獻慶序), 기사본(1869, 金植刻), 임진본(1892, 宋秉璿跋), 정사본(1917, 金基鴻校), 무인본(1938, 金泰鎮跋)이 있다.

위 연구자들의 견해를 참고하면 경진본, 기축본, 기유본은 시문집 25권 체재로 비슷하고, 기사본, 임진본, 정사본, 무인본은 시문집 10권 체재로 비슷하다. 경진본과 기축본의 차이에 대해 강대걸은 해제에서,

“그러나 이 때 간행한 기축본(己丑本)이 대체로 경진본의 체재를 따르고 있어 새로 판각한 것인지 아니면 보완(補板)한 후쇄본(後刷本)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간행장소는 이준록과 함께 예림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경진본과 다른 점은 남곤의 서문이 없으며, 두주(頭註)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sup>3)</sup>

하였는데, 필자가 「점필재선생전서」에 영인된 경진본과 「한국문집총간」에 영인

3) 姜大杰, “佔畢齋集解題,” 「國譯佔畢齋集」(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7)

된 기축본을 대조해 보니 판심머미가 틀리고 부분적으로 글자가 틀리므로 기축본은 전면 새로 복각하여 판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3. 「점필재집」의 초간본 문제

「점필재집」의 초간본에 대해 오세옥은 “1520년에 康仲珍이 남은 殘稿를 모아 嵩善(善山)에서 畚宰의 도움을 받아 간행하였다. 《초간본》”라고 서술하여 경진본을 초간본으로 보았다. 김광수는 석사학위논문에서 홍치 10년 丁巳(1497)에 초간본이 간행되었다고 서술하고 현존하는 판본으로 경진본이 첫째 본이라고 하였다. 강대길은 위에서 인용한 대로 문집은 1495년에, 시집은 1497년에 간행된 것(초간본)으로 서술하고 1520년의 판본은 중간본(경진본)으로 설명하였다.

오세옥은 초간본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고,

“한편 李世英(?~1510)의 日記에 의하면 본 문집을 ‘曹偉가 편집하고 洪錫堅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開刊하였다.’ <「연려실기술」권6, 燕山朝 戊午史禍> 하는데, 이로 보면 무오사화 이전에 한번 간행되었던 듯하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sup>4)</sup>

하였는데, 「연려실기술」에서 관련 조를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직의 죄를 추론(追論)할 때에 대간이 생전의 관작만 깎아 버리자고 청하였더니, 너무 가벼운 벌을 논했다는 이유로 모두 죄를 입었다. 「점필재문집(佔畢齋文集)」은 조위(曹偉)가 편집하고 홍석견(洪錫堅)이 전라 감사로 있을 때 간행하였는데, 조위는 연경(燕京)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홍석견은 유자광이 구원하여 중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니, 함양(咸陽) 사람들이 김종직의 사우(祠宇)를 세우고자 할 때 홍석견이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고을에서 공적으로 의논할 일은 아니다.’ 고 하였으므로 이때에 유자광은 이 일을 들어 홍석견을 구원하였다 《이세영일기》<sup>5)</sup>”

4) 오세옥, 전계서.

6) 「연려실기술」권6, 燕山朝 戊午史禍條.

그러나 오세옥은 「연려실기술」만 찾아보고 정작 중요한 「연산군일기」는 찾아보지 않아 의심으로 끝난 것이다. 실상 「연려실기술」에서 말한 洪錫堅은 鄭錫堅의 오자이고 鄭錫堅의 간행사실이 「연산군일기」에 서술되어 있다.

金光洙는 “佔畢齋先生 文集研究”란 석사학위논문(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9.)에서 정사본의 존재에 대해 「연산군일기」4년 9월 8일조를 인용하여 자세히 논하였다. 다만 하나 잘못 논한 것은 그 당시 정석견이 “1495년(연산군 1년) 지성군관사, 병조참지를 거쳐 다음해(1496) 대사간, 1497년 이조참판이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서울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는데 정석견이 전라도 관찰사일 때 간행한 것이다.

신승운은 “成宗朝의 文士政策과 文集編刊”(1994)이란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점필재집」이 문집과 시집으로 나뉘어 2차에 걸쳐 간행되었음을 曹偉의 진술을 통하여 추론하였다. 신승운이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나누어 살핀 것을 인용한다.

“부득이 전체 시문 17권에서 문만을 대상으로 가려 뽑아 1권으로 만들었다. 마침 조위가 연산군 1년(1495) 7월에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되고 동 8월에 임지에 부임하게 되자, 출판의 비용을 모아 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0월 6일에 모친상을 당하여 복상을 위하여 벼슬을 버리고 金山으로 돌아갔고, 이때 자신의 후임자로 온 鄭錫堅(?~1503)에게 맡겨 간행하게 된 것이다. 并宗直詩文十七卷進之. 然簡秩浩繁未得刊, 乃抄文爲一卷. 及臣觀察全羅道, 鳩財欲刊, 適遭喪, 付交代鄭錫堅刊之.<sup>6)</sup>”

이어서 점필재집의 시집 간행경위를 다시 살핀 것을 인용한다.

“앞의 曹偉의 진술은 무오년(1498) 9월 8일에 행해진 것이므로 여기서 지난해 겨울은 연산군 3년(1497) 정사년 겨울을 지칭한다. 조위의 연보에 의하면 정사년 10월에 상을 마치고 12월에 밀양에 가서 김종직의 무덤을 찾아가 성묘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의 상경은 12월의 어느 날일 것이다. 이때 김종직의 조카인 강백진이 찾아와 간행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종직의 시집을 내놓고 간행의 주선을 부탁하였다. 1부를 인쇄하여 번간하는 것도 흔히 쓰는 방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抄出

6)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政策과 文集編刊,”(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123.

한 것을 교서관 관리인 이수무와 유효산에게 부탁하여 활자로 우선 1권을 인쇄하였다. 이렇게 한 권의 인쇄가 끝난 시점에서 이를 추진한 조위가 연산군 4년 4월에 성절사로 선발되어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조위는 이 일을 참의 이창신을 통하여 다시 교서관의 이수무에게 부탁하여 인쇄가 끝나지 않은 4권을 활자로 인쇄하여 전라도관찰사 이인형에게 보내주도록 조치하였고, 본래의 원고 7권도 모두 이창신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前年冬臣服? 上京, 伯珍以宗直詩集付臣請刊. 臣乃抄出 欲付全羅監司李仁亨刊行, 第患無人繕寫, 乃囑校書別坐李秀茂、校理柳孝山, 以鑄字先印一卷. 及臣赴京, 將其餘四卷付參議李昌臣, 使囑秀茂畢印, 寄與仁亨, 其本藁七卷并付昌臣. 그러나 활자본으로 시집의 간행이 끝나고 전라도에 보내져 목판으로까지 간행된 지는 분명치 않다. 조위가 시집의 간행을 부탁하기로 했다는 이인형이 시집의 출판으로 조사를 받은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sup>7)</sup>

이인형(1436~1498)은 「점필재집」의 문집을 간행한 정석견이 파직된 것 <燕山君日記 30卷 4年 7月 19日(癸丑) 弼商等啓: “律該鄭錫堅刊宗直文集罪, 杖八十, 奪告身三等.” 命只罷 >에 반해 무오사화가 일어난 다음해 연산군 5년 3월에 正朝使로 명나라에 갔다 돌아와서 연산군의 중국 조정의 일을 묻는 데 대답하였으니 오히려 연산군이 신임한 것이다. “辛巳/正朝使李仁亨等還自京師. 王問中朝事, 仁亨等啓: “皇帝無日不視朝, 雖齋戒日, 亦視朝, 但不聽事耳.”

신승운의 추론대로 「점필재집」의 시집이 활자본에 그치고 목판본으로 판각되지 않았다면 이인형에게는 문집 간행의 죄를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강대걸은 해제에서,

“이상에서 「점필재집」의 문집은 1495년, 시집은 1497년에 각각 초간(初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고 하였는데 그 바로 위에서,

“연산군 3년(1497) 10월에 복을 마치고, 12월 밀양으로 가서 점필재의 묘소에 제(祭)를 지내고 상경하였다. 연산군 4년(1498) 강백진의 부탁으로 점필재시집 1권을 주자로 인쇄하고 나머지 4권의 인쇄를 부탁한 후, 4월에 성절사(聖節使)로 명

7) 신승운, 상계서.  
8) 강대걸, 전계서.

나라에 갔다.<sup>9)</sup>”

하였으니, 「점필재집」의 5권짜리 시집 초간본은 1498년(무오)에 활자로 인행된 것이다. 「점필재집」의 문집 초간본은 1495년(을묘)에 1권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후대의 시 23권 문 2권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매우 단출하다. 무오사화에 채판은 훼손되고 시문집은 조각처분된 뒤 중종반정 후인 1520년(중종15) 경진년에 강증진이 시 23권, 문 2권으로 간행하였으니 이것이 중간본에 해당한다. 초간본은 抄本에 불과하고 중간본에 와서 비로소 전집이 완간된 것이다.

초간본 문집 첫머리에 점필재의 청년시대 충분을 토로한 작품 弔義帝文을 수록함으로써 무오사화의 단초를 열었다.

#### 4. 조의제문과 무오사화 「점필재집」 훼손사건

연산군 4년(1498)에 무오사화가 발생하였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을 때 훈구파의 비행을 직서한 것이 빌미가 되고 弔義帝文을 성종실록 사초에 올리고 「점필재집」 첫머리에 수록하여 간행한 것이 크게 화약가가 되어 이를 문제 삼아 유자광과 이극돈 등의 훈구파가 점필재와 그 문인들이 주축인 사림파를 공격하여 일망타진한 정치 사건이다. 조의제문의 내용은 단종을 향우 시대 초나라 義帝에 비기어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세조가 단종을 죽인 사실을 풍자하여 왕위 찬탈을 비난한 것이다.

연산군 4년 7월 15일(기유) 조에 따르면, 유자광은 연산군에게 조의제문을 구절구절 세조와 단종의 사실에 빗대어 풀이하면서, 김종직의 죄를 다스리고 아울러 「점필재집」과 그 판본을 모두 불사르며 이를 간행한 사람도 죄를 다스리라고 요청하였다.<sup>10)</sup> 그리하여 연산군은 동년 7월 17일(신해)에 전라도 도사 정중보에

9) 강대걸, 전게서.

10) 「연산군일기」권 30, 4년 7월 13일 己酉條 “柳子光句解金宗直, 弔義帝文, 以啓曰 此人敢爲如此不道之語, 請依法治罪. 此文集及其板本, 請悉焚之, 其刊行人, 亦并治罪”

게 전라도에서 간행한 「점필재집」의 판본을 소각하여 훼손하라는 유시를 내리고, 또 예조에 김종직의 문집을 소장한 자는 즉시 수납하게 하고, 수납하지 않는 자는 엄중히 처벌하라고 전교하였다.<sup>11)</sup> 그 결과 「점필재집」은 소각, 훼손되기에 이르렀으며, 조위는 의주로 유배되었고, 정석건은 파직당하였다.

「점필재집」의 훼손사건은 조선 최초의 문신의 저작에 대한 필화사건(중국 역사에서 흔한 文字獄)이고 문집 책판에 대한 훼손 사건이며 한동안의 금서사건이다. 이후 문집 편찬할 때 시사문제의 忌諱文字는 삭제하고 수록치 않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점필재는 弔義帝文을 왜 짓고 왜 남겨 두었는가. 고려말의 충신으로 조선에 베풀리지 않고 은거한 야은 길재의 정신을 잇는 점필재로서는 사육신과 생육신의 정신세계를 추종하였을 것이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길을 걷지 못하는 처지의 문인으로서 할 일은 작품을 지어 그 정신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弔義帝文이다. 후세 白湖 林悌의 元生夢遊錄도 같은 정신의 작품이라고 하겠다. 비록 수자 6명에는 차지 않지만 이들을 문인으로서의 육신 정신 소유자라고 한다면 文六臣 이라고 할 수 있다.

점필재는 이런 사람과의 정신적 맥락의 상징으로 조의제문을 짓고 강조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니 제자들은 은연중 조의제문의 단종과 육신의 추송 정신, 忠憤 의식을 공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계 조위가 「점필재집」의 문집을 편찬, 간행할 때 첫머리에 조의제문을 수록하고 탁영 김일손이 성종실록 사초에 조의제문을 수록한 것이다. 우연히 수록한 것은 아니다. 유자광이 괜히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사육신, 생육신의 忠憤의식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후세에 성호 이익은 조위가 「점필재집」에 조의제문을 수록한 것을 운명적으로 노래하였다.

“曹梅溪偉는 字太虛요 벼슬은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점필재의 처제이다. 성종이 공에게 점필재의 문집을 찬집하라 명하니 조의제문을 첫머리에 수록하였다. 무오년

11) 상계서, 권 30, 4년 7월 17일 辛亥條. “諭全羅道都事鄭宗輔曰 道內開刊金宗直集板本, 卽燒毀. 傳于禮曹曰 中外人或藏金宗直集者 卽令輸納 不納者重論”

에 유자광이 연산군에게 참소하기를 조위가 의제문을 첫머리에 수록한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하니 연산군이 크게 노하였다.<sup>12)</sup>

조위는 의주와 순천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별세하고 갑자사화에 부관참시되어 묘소 앞 바위에 삼일 동안 시체가 놓여진 고사가 중국 점장이의 예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김일손이 「성종실록」 사초에,

“노산군 시신이 수풀에 버려져 달포나 거두는 사람이 없어 까마귀 등이 와서 쪼았다. 한 동자가 밤에 시신을 업고 달아났으니 물이나 불에 던졌는지 모른다. 종직이 과거 급제 전에 꿈에 느낀 바가 있어 조의제문을 지어 충분을 담았다.<sup>13)</sup>”

라고 종직의 조의제문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어찌 의도가 없는 일인가. 점필재나 탁영이나 매계 모두 단종시해에 대한 충분, 사육신, 생육신 정신의 소유자인 것이다. 점필재의 제자로 생육신인 추장 남효운이 六臣傳을 지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사림과의 공감, 공유 정신인 것이다.

점필재의 弔義帝文은 액면가로는 지은 시기가 정축년(1457, 세조 3) 10월로서, 단종대왕이 시해된 달이다. 弔義帝文을 지은 시점과 동기에 대해 3가지 설이 있다. 첫째, 과거 급제전, 단종시해에 대한 충분의식으로 지었다. 둘째, 벼슬 초기 세조대왕에게 뵈보여 비방의식으로 지었다. 셋째, 지은 적이 없다. 김일손의 위 기록은 첫 번째 설에 해당한다. 유자광이 김종직의 문집에서 弔義帝文과 述酒詩를 적출하여 이 글들이 다 세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모함한 것이 두 번째 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순전한 날조, 모함이 아니라 은연중의 의식 세계를 까맣혔다고 하는 편이 맞는 말일 것이다.

연산군은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김종직을 불초하다 하셨는데, 종직이 이것을 원망하였기 때문

12) 이익, 「巖下宿」, 「해동약부」 所收.

13) 「연산군일기」 4년 7월 13일조

에 글월을 지어 기롱하고 논평하기를 이에 이른 것이다. 신하가 허물이 있으면 임금이 책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가. 여러 재상들은 알아 두라<sup>14)</sup>”

하였다. 점필재가 세조에게 책망받고 원망하여 지은 글이 조의제문이라고 본 것이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의식은 연산군이나 유자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중에도 있었다. 기묘사화(1519, 중종 14)의 광풍이 지나간 뒤인 중종 24년 10월 16일에李宗翼이 상소하기를,

“우리 세조조에 어떤 대신이 김종직을 천거하자 세조께서 친히 만나보시고는 부유라서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종직은 발끈 화를 내고 물러가서는 조의제문을 지어 비방했습니다...이미 복면하여 신하의 의를 맺은 사람이 다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전국 시대의 비루한 선비도 하지 않던 것입니다.<sup>15)</sup>”

하였다. 그러면서 1) 신하로 칭하지도 않고 2) 녹봉도 받지 않으면서 3) 일월같은 충의를 지닌 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지닌 자는 바로 은연중 사육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점필재도 사육신의 정신을 계승하지만 모두가 사육신과 생육신처럼 살 수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른 삶을 사나 정신 세계는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니 文六臣과 같은 경우라 하겠다. 조의제문은 세조 당대에 과감히 당대를 풍자한 작품이므로 문학적 가치가 높은 것이다. 단순히 천여 년 뒤에 조선 선비가 중국 초나라의 의제를 불쌍히 여기는 글이라면 뭐 대단할 게 있겠는가.

이중익은 조광조 등을 중국 송나라의 왕안석 같은 소인이라고 평하면서도 기묘당인들의 석방을 건의하고 시사를 극언하여 집권자의 미움을 사서 처형되었다. 그리하여 기묘명현에 속한다.<sup>16)</sup>

유자광이 문제삼은 것은 조의제문뿐 아니라 和陶淵明述酒란 詩도 문제삼았다. 중국 쑤나라 도연명은 述酒란 시를 지어 남조 송태조 劉裕가 쑤恭帝를 폐하여

14) 「연산군일기」 4년 7월 16 일조

15) 「중종실록」 24년 10월 16 일조

16) 「知退堂集」黃菟記事 儒士 李宗翼條 .

영릉왕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해에 공제를 시해하고 제위를 찬탈하여 송을 건국하였는데, 시해당한 영릉왕을 애도한 것이다.<sup>17)</sup>

점필재는 劉裕篡弑之罪와 陶淵明忠憤之志를 조술하여 和陶淵明述酒란 詩를 지은 것이다. 이것도 단순한 화답시가 아니고 당대를 풍자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유자광의 모함이 무지한 억측은 아니라고 하겠다. 조의제문이야 청년시대의 열정이 넘치는 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도연명술주는 시집의 연대순 편집 체제를 고려하면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성종 6년(1475) 함양군수로 재임할 때이니 한참 벼슬길에 들어선 뒤의 작품이지만 내심으로는 일관된 정신 세계를 견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점필재는 술주시의 소서에서,

“도연명은 유유의 찬탈에 대해 자신만 깨끗이 유지하고 언어로 명시하여 멸문의 화를 초래할 것이 없었지만 나는 천년 뒤에 태어나 유유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 유유의 흥역을 다 묘사하니, 후세의 난신적자는 내 시를 보고 두려워할 줄 알 것이다. 삼가 춘추의 직필에 비긴다.<sup>18)</sup>”

하였다. 상당히 호기어린 언사이다. 代不乏人이라 어느 세상엔들 인재가 없으리 오마는 또한 어느 세상엔들 폭군, 간신이 없겠는가. 유유는 없었지만 대신 연산군과 유자광이 있었으니 두려워할 줄 알기는커녕 오히려 모함하여 일망타진 멸망시켰다. 점필재는 당대의 세상에 대해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도연명처럼 명철보신하지 못하여 참혹한 결과를 빚은 것이다.

세 번째 설은 손자인 金紐가 주장하였다. 점필재 27세 시절 정축년 10월에 부친상중에 성주 담계역에서 유숙하였다는 조의제문의 글을 유교의 예법에 맞게 복사하는 학자로 거상중에 나들이할 리가 없다고 부정하였다.<sup>19)</sup> 이에 대해 金永峯(1999, p.106)은 회당고를 인용하고 여러 전거를 통해 거상중에 나들이하고 시를 지은 사실을 밝혀 조의제문이 정축년 10월에 성주로 가는 도중에 지었다고

17) 「佔畢齋集」 권11, 판5.

18) 「佔畢齋集」 권11, “和陶淵明述酒并序.”

19) 「佔畢齋集」, “佔畢齋先生年譜.”

하였다.

조의제문은 초간본 문집에 실려 무오사화를 초래한 기피문장이고 심지어 점필재의 창작이 부정되는 작품이라서 중간본-기축본 문집부터는 이후 죽 실리지 않았다. 다만 점필재연보의 무오사화사적에는 전문이 인용되어 있다.

## 5. 「점필재집」의 중간본과 회당고 - 경진본

「점필재집」의 초간본은 전질이 다 목판으로 간행되지 않았고 간행된 책판과 판본도 무오사화 때 소각되어 없어졌다. 그러나 필사본은 유통되었을 것이니 중간되기 수년 전에 편찬된 속동문선에 점필재의 시문이 다수 수록된 것으로 짐작된다. 책판으로의 중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점필재의 생질 강중진이 백형 강백진의 유지를 이어 종종 15년(1520) 경진년에 善山에서 중간하고 가을 8월에 남곤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수록하였다. 남곤이 문장의 대가이고 점필재의 제자이기도 하고 당대의 권력자이긴 하지만 그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은 잘못이다. 유자광이 무오사화의 원흉이라면 남곤은 기묘사화의 원흉이다. 서문을 부탁한 경진년은 기묘사화(1519년 11월)가 일어난 지 1년밖에 안된 시점이라 사림들의 원성이 드높을 때고 남곤은 기묘사화의 원흉으로 원성이 집중되는 존재인데 그에게 사림과의 종장인 점필재의 문집에 권두를 장식하는 서문을 부탁한 것은 사림과의 수치라고 하겠다.

「점필재집」기사본 점필재선생연보에 수록된 남곤의 舊序의 小註에

“이것은 남곤이 지은 것인데 기묘이후에 제거하였다. 지금 여기에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공한다.”

하였는데 기묘사화가 일어난지 1년도 안된 때에 서문을 부탁하여 수록한 사실을 망각하고 기묘 이후에 제거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연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경진본은 시집 23권, 문집 2권 도합 25권 7책이다. 시집 첫머리에 남곤의 서문이 있다. 문집이 따로 별책으로 편집되지 않고 시집 1권 뒤에 문집 1권, 시집 2권 뒤에 문집 2권이 배열되고 제3권부터는 시집만 편집되어 있다.

序: 正德紀元之十五年上章執徐(庚辰1520)歲南呂月上澣…宜春南袞謹識

제1책 권수제는 ‘佔畢齋集卷之一’

시집 뒤에 시작되는 문집의 권수제는 ‘佔畢齋文集卷之一’

문집 1권 뒤에 있는 시집 2권의 권수제는 ‘佔畢齋集卷之二’

시집 2권 뒤에 있는 문집 2권의 권수제는 ‘佔畢齋文集卷之二’

제7책 시집 23권 권말제는 ‘佔畢齋集卷之二十三終’

점필재의 저작으로 「점필재집」의 판본에 속하지 않는 문집-엄밀히 말하면 시집임-이 있으니 梅堂稿가 그것이다. 박사 이우성 교수가 일본에서 영인해 온 것으로 「서벽외사 해외수일본」 73에 수록되었고, 국내의 충남대학교 소장본이 계명한문학회에서 영인한 「점필재선생전서」 4에 수록되어 있다. 목판본임에도 서발이나 관계 기록이 없어 간행처나 간행 내력을 전혀 알 수 없다. 「점필재집」 경진본과는 달리 권수제나 권말제도 없다.

啓明漢文學硏究會의 해제(1996, 1책 p.7)에 의하면 회당고의 판심제는 梅堂稿, 표제는 畢齋集外라고 되어 있다 梅堂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점필재의 별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나 지금까지는 회당이란 점필재의 호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문사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金永峯(1999, p.106)도 김종직이 梅堂이란 호를 썼다는 기록은 없고 의문을 밝혀줄 아무런 단서도 없어 이에 대한 해명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필재가 국어가 소장한 수목삼매죽자에 쓴 시를 보면 걸련에,

“君不見通班碌碌梅堂翁/그대는 통반의 녹록한 회당옹을 보지 못했나  
十年不歸今耳聾/십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여 이제 귀머거리 되었네.”<sup>20)</sup>

하였는데, 「국역점필재집」의 주석에서 회당옹은 저자 자신을 가리킨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고 하였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회당옹은 시 작자 곧 점필재의 자호가 틀림없다고 본다. 이 시를 지은 연대를 고찰해보면 「점필재집」의 시집 배열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으니, 이 시가 배열된 앞뒤로 乙巳十一月(1485, 성종 16)과 今丁未年正月(1487, 성종 18)의 시가 놓여있으니 이 시는 성종 17년(1486, 병오)에 지어진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시점에서 10년전이면 1476년(성종7, 병신)으로 이해 1월에 함양군수의 임기 6년을 채우고 지방수령 고과 1등으로 통훈대부 지승문원사로 승진하여 상경하였을 때이다. 그러나 7월에 다시 모친 본양을 위하여 선산부사로 나갔고, 이후 모친상을 치르고 성종 13년(1482)부터 예문관 직제학, 승정원 동부승지, 이조참판, 예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여 10년후에는 벼슬길에 배몰돼 있을 때이다. 그리하여 벼슬길에 배몰되어 있는 신세를 후회하며 회당이라고 자호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회당고에 실린 시들은 모두 10대와 20대의 작품들이니 벼슬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여 벼슬길에 들어서기 전의 10대와 20대 때 지은 시들을 모두 회당고에 자편하여 수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회당고에 나타난 김종직의 초기 시 연구를 쓴 金永峯(1999,p106)에 의하면 회당고에 수록된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18세 작인 오언고시 聞密陽等處水災戊辰年이고 가장 늦은 시기의 작품은 29세 작인 오언율시 己卯驚蟄日雷電正月二十五日이라고 한다. 점필재는 이해 기묘년 세조 5년 4월 1일에 高台鼎의 榜에 들어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위의 시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기 전의 작품인 셈이다.<sup>21)</sup>

김영봉의 주장(1999, p.106)에 따르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은 부친상을 당하여 거상중이던 27세 때로 회당고에 거상중에 출타하여 지은 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고증하여 거상중에 외지에 나갈 리가 없다고 하여 제작시기가 잘못 되었을 것이라는 연보의 설을 바로잡았다.

20) 「佔畢齋集」 권20 판4, “書國耳所藏水墨三昧簇安堅畫.”

21) 「世祖實錄」卷16, 5年 4月 1日條, “壬子朔 取文科高台鼎等三十三人.”

김종직의 조의제문 연구를 쓴 정상균(2002, p.221)은 김종직이 조의제문 첫머리에 거론한 정축년 10월이란 바로 단종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서 세조에 의해 살해되었던 때라면서 이를 제작 배경으로 잡은 조의제문에 전제된 김종직의 뜻은 가까이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모친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벼슬길에 나선 점필재의 심리 상태는 그것을 후회한다는 회당이란 호와 후회 시기 전의 조의제문을 짓기 전의 순수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던 청년 시대의 시 작품들을 모아놓은 회당고를 통해서 규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수의 연구(1990, p.16)에 의하면 회당고에는 오언고시 35수, 칠언고시 28수, 오언율시 60수, 칠언율시 68수, 오언절구 31수, 칠언절구 109수 등 모두 331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점필재집」에 수록된 시는 한 수도 없고, 仙槎寺, 圍棋贈文緯, 晩起 등 3수만이 「속동문선」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회당고를 통해 점필재의 초기 시 328수가 더 발견된 셈이라고 하였다.

「속동문선」은 23권으로 중종 13년(1517)에 신용개, 김전, 남곤 등이 성종 이후의 시문을 모아 엮고 중종 14년에 을해자로 간행한 총집이다. 「점필재집」의 전질이 간행되기 전이니 필사본으로 유통되는 「점필재집」의 시문과 회당고의 시가 「속동문선」에 수록되었는데 필사본 회당고의 시에서 뽑은 것인지, 간행본 회당고에서 뽑은 것인지 미상이나 「점필재집」의 중간본(경진본, 1520) 간행과정에서 회당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글자체나 상하내향혹어미 등이 경진본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경진본 이후에 회당고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진본을 편찬한 강증진은 당시 승문원판교의 문신이고 남곤은 「속동문선」을 편찬하고 경진본의 서문을 쓴 훈구파 대신이니 「속동문선」에 수록된 위 3수가 「점필재집」에 수록되지 않은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후대의 시화(國朝詩刪, 謏聞鎖錄, 金永峯(1999, p.106))에도 회당고의 시들이 많이 인용되어 품평되었다. 그렇다면 회당고는 당시 「점필재집」의 시문집과는 별도로 편찬,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진본에 채수록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널리 유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정출현 교수의 교시에 의하면 일본 輪王寺에 소장되어

있는 「점필재집」은 남곤의 서가 있는 경진본인데, 이는 시집 23권, 문집 2권, 회당고 1권 등 총 8책이라고 하였다. 「점필재집」관계 기록은 다 7책이지 8책을 언급한 것은 없으니, 원래 7책인데 회당고가 포함되어 8책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이런 편성 체재는 희귀한 예로서 경진본 간행 이후 임진왜란 이전에 형성된 체재일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왜란으로 회당고가 소실된 뒤 회당고의 존재가 망각되어 재중간본 이후는 회당고가 편성되지 못한 7책 체재로 고착된 것이리라.

## 6. 「점필재집」의 재중간본 - 기축본

중종 15년(1520, 경진)에 「점필재집」이 중간된 뒤 명종 14년(1559)에 이르러 벌써 목판이 희미해질 정도로 많은 인쇄가 이루어진, 인기있는 문집이 되었다. 그리하여 명종 때 지경연사 洪暹은 상소하여

“성종조의 점필재 김종직 같은 사람은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문장만 아름다웠을 뿐이 아닙니다. 그의 문집은 인출되었으나 지방의 목판은 희미하고 또 전하는 집이 드무니 인출하여 중외에 배포해야 합니다.”<sup>22)</sup>

하였으니, 목판이 닳을 정도로 「점필재집」이 많이 인쇄, 유포된 양상을 말해준다. 목판이 닳았으므로 印出(여기서는 활자본 인쇄를 가리킨다)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것이 불타고 나서 새로운 책판의 판각, 재중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그 필요성은 경상도 관찰사 李旻(1605~1664)에 의하여 인조 27년(1649, 기축)에 실현되었다. 이만은 인조 26년(1648) 2월에 경상감사에 임명되고, 인조 27년 2월에 당년 연임하게 하고 효종 즉위년(1649) 겨울에 병조참판이 되었다. 彙尊錄 중간본의 강백진 발문 끝에 이만의 간행 사실을 알려주는 소주가 유일한 증거이다.

22) 「명종실록」 14년 10월 19일조

“홍치 10년 정사(1497, 연산군 3)에 비로소 간행하고 임진왜란에 불타 없어져 전해지지 않았다. 백여 년 뒤 기축년(1649, 인조 27)에 이르러 문집은 관찰사 이만이 다시 인쇄 배포하고 이준록은 예림서원에서 중간하였다.”

연산군 3년(1497)에 점필재의 만생질 홍해군수 강백진이 점필재의 저작인 이준록을 홍해군에서 간행하였다. 이 이전에 「점필재집」은 매계 조위에게 부탁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조위는 연산군 1년(1495, 을묘) 8월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간행하려다 10월에 모친상을 당해 이임하며 후임 정석견에게 다시 부탁하여 문집 초본 1권만 간행하였다. 연산군 3년(1497, 정사) 10월에 탈상하고 12월에 상경한 뒤 다시 강백진의 시집 간행 부탁을 받고 교서관에서 시집 1권만 우선 활자로 인출하였다. 인출한 시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연산군 4년(1498, 무오) 초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굳이 「점필재집」의 초간본을 논한다면 판본으로는 을묘본(문집만), 최종 간년인 무오년을 기준으로 활자본 시집 무오본(版本에는 해당되거나 板本에는 포함할 수 없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준록의 위 소주의 홍치 10년 정사는 이준록의 초간년이지 「점필재집」의 초간년은 아니다. 위 소주에선 「점필재집」의 중간본 경진본(1520)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다. 관찰사 이만이 다시 인쇄 배포한 것은 경진본을 다시 인쇄 배포한 것이다. 이준록도 초간본인 정사본에 이어 1558년(명종 13, 무오)에 노경린(1516~1568)이 중간하였으니, 이만 시대에 예림서원에서 다시 중간한 것은 재중간본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기축본은 경진본의 체재를 따라 전면 다시 간행한 것인데 글자에 있어 교감이 필요한 곳은 임의로 고치지 않고 두주를 달아 밝혀준 것이 특징이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한 「한국문집총간」소수 「점필재집」(시문집)이 기축본이다.

김광수(1990, p.9)는 前問恭作의 古鮮冊譜를 인용하며

佔畢齋集 二十五卷 金宗直 木版

七冊

仁祖庚辰全州尹韓興一入梓

라 하여 한홍일이 1640년 전주에서 간행하였다고 하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원전이나 문헌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홍일(1587~1651)은 실학자 구암 한백겸의 아들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인조 2년 문과에 급제하고 전주부윤을 역임하고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잡혀갈 때 배종하고 우의정을 지냈다. 시호는 靖溫이다. 인조 16년(1638, 무인) 6월에 전주부윤이 되고 19년(인조 1641) 7월에 우승지에 임명되었다. 경진년(1640, 인조 18)에 전주에서 점필재집을 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9년 뒤에 경상도 관찰사 이만이 다시 「점필재집」을 간행하였다는 것은 알고서는 안될 일이고 이런 대역사가 알려지지 않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이 간행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일단 신빙한다면 전주에서 간행 시작, 경상도에서 간행 완료로 보는 것이 근리하겠다. 이만이나 한홍일이나 본인들의 전기 기록에선 「점필재집」간행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숨길 일이나 소소하게 여길 일은 아닌 듯하고 자랑할 일인데 없다는 것은 사람을 의아하게 한다. 후인들의 단편적 기록에만 의지하여 애매하게 서술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기축본은 기묘사화의 원흉 남곤의 서문을 삭제하고 서문도 발문도 없이 판각, 유포되었다. 명현의 문집에 서문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점필재의 후손 金相度(一精)가 정조 13년(1789, 기유) 11월에 良翁 李獻慶에게 부탁하여 짓게 하고 서문을 짓는 동시에 점필재의 손자 金紐가 편찬한 「연보문인록」(만력 8년: 1580, 선조 13, 경진 7월 序)을 勘正하게 하였다.<sup>23)</sup> 이 분이 일부 보판이 이루어진 己酉本이다.

## 7. 「점필재집」의 삼중간본 - 기사본

인조 27년(1649, 기축)에 재중간된 뒤 220년 뒤인 고종 6년(1869, 기사)에 점필재의 13대손 金植이 밀양 예림서원에서 「점필재집」을 다시 간행하였다. 이것이

23) 「간옹선생문집」 권19, “점필재집서.”

삼중간본인 기사본이다. 기사본은 시집 8권, 문집 2권, 이준록 2권, 연보·문인록·부록 불분권 합 9책으로 편성되었는데 기축본에 비겨 혁명적으로 시문집을 개편한 것이다. 기축본 시집 23권에 수록된 1700여 수의 시를 임의대로 산삭하여 1100여 수로 줄여 기사본 시집 8권에 수록하였다. 문인록에도 원 문인 50인 기록에 9인을 임의로 더 수록하여 선현의 저작을 함부로 손댔다고 성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 성토 기록이 고종 12년(1875, 을해)에 ‘佔畢齋金先生門人錄과 함께 간행된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이다.

기사본의 시집 제8권말에 “崇禎紀元後四己巳陽復月下澣十三代孫埴重刊于密陽禮林書院”이란 간기가 있다. 기사본의 연보문인록에는 “기사이원상한사촌 창현근발”의 발문이 있는데 이는 김식이 모명하여 무엄하게 지은 것이라고 ‘佔畢齋金先生門徒錄添刊辨破錄’에서 비판하였다. 기사본의 영인본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발행 「이조명현집」2에 실린 「점필재집」의 시집(기축본)을 제외한 문집, ‘연보문인록부록’이다. 계명한문학연구회에서 영인한 「점필재선생전서」, 소수 소위 임진본이라 한 문집과 ‘연보문인록부록’은 실상 기사본이다.

고종 29년(1892, 임진)에 종손 金昌鉉, 金啓鉉 등이 예림서원 훼손 이후 유실된 기사본의 책판을 修補한 보판본 임진본을 간행하였다. 권말에는 崇禎紀元後五壬辰에 쓴 宋秉璿과 李憲(金+憲)永의 발문이 있다. 전통적인 남인의 종기에서 노론의 영수 연재 송병선의 발문을 받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1917년 정사년에 대구의 방각본업자 출신 在田堂書鋪 주인 金基鴻이 교정하여 간행한 보판본이 정사본이다. 송병선의 발문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임진본 책판을 인쇄한 것이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상세정보

표제/저작사항 佔畢齋先生集：附錄 / 金宗直 著；金基鴻 校；李曼, 金啓鉉... 等編

판사항 木板本(後刷)

발행사항 大邱 : [刊寫者未詳], 1917

형태사항 8冊 : 四周單邊 半郭 19.8 x 17.0 cm,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 31.0 x 21.6 cm

주기사항 跋: 崇禎紀元後五壬辰(1892)...宋秉璿

소장처1 서울(11) 국립중앙도서관 BC 古朝46-기693

1938년 무인년에 점필재선생의 15대손인 金泰鎭의 발문만을 침입하여 양지에 인쇄한 보판본이 무인본이다. 내용과 편차는 임진본과 동일하다.

기사본이나 임진본 이후의 본들은 경진본이나 기축본과는 질량이 차이가 많이 난다. 기사본을 편간하며 1100여 수의 시들을 삭제한 김식은 무슨 자격으로 그리 했는가. 남들은 片言隻字라도 찾아 더 수록하려고 했건만 그 많은 작품들을 점필재의 수준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위인이 자기 임의대로 삭제하니 경우도 없고 조상숭배, 명현 존숭의 예의, 경의도 전혀 없는 것이다.

「점필재집」기사본의 경우는 남명 조식의 문집인 「남명집」의 판본 문제와 비슷하다. 남명은 조선 중기의 경남의 대학자로 경북의 퇴계 이황과 동갑으로 쌍벽으로 칭해지는 성리학자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노장사상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퇴계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문묘종사문제도 좌절되었다. 또 그의 수제자로 인조반정에 역적으로 처형된 내암 정인홍이 편간을 주도하고 그의 글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반정 이후 내암의 그림자와 노장 기미 제거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남명집」도 고종 31년(1894, 갑오)에 후손 復菴 曹垣淳(1850~1919) 등이 갑오본을 간행하였는데 이때 남명의 노장 기미나 내암 문자 및 불미한 교우관계 문장을 전면 삭제하고 작품들의 문구를 산삭하고 감소시키며 체재를 확 바꾸어 중간하였다. 도에 지나치고 무엄하기 그지없는 편집권의 남용이었다. 세기말의 사상적 전환기에 보수로 회귀하여 진실을 왜곡, 축소, 변개하고 원형을 훼손하면 서까지 남명학을 퇴계학에 종속시키고 성리학에 국한시켰다.<sup>24)</sup> 이런 평가는 「점

24) 金命壽, “南冥集의 冊版과 印本の 系統,” 『南冥學研究』 제2집 (1992. 12), 253.

필재집」의 고종시대 판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8. 맺음말

김중직의 「점필재집」은 조선조 최초의 ھ판사건을 야기한 문집으로 정치적 사건과 가문의 사건, 전란 등으로 크게 4차례, 작게는 모두 8차례 정도 판각이 이루어져 많은 판본이 존재하게 되었다.

초간본: 연산군 시대에 강백진, 조위, 정석견이 1년(1495, 을묘)에 문집 1권을 판각하고, 조위의 부탁으로 이수무가 4년(1498, 무오)에 시집 1권을 활자로 인출 하였으니, 초간본이다. 단중에 대한 忠憤의식, 사육신 계승 정신이 담긴 조의제문을 첫머리에 수록한 것이 빌미가 되어 초래된 무오사화로 소실되어 전래본이 하나도 없다.

경진본: 무오사화로 ھ판되고, 기묘사화 직후 강중진이 남곤의 서문을 붙여 중종 15년(1520, 경진)에 시집 23권, 문집 2권으로 중간하였으니, 경진본이다.

기축본: 임진왜란으로 책판이 소실된 뒤 인조 27년(1649, 기축)에 경상도관찰사 이만에 의하여 시문집 25권과 이준록이 재차 중간되었으니, 기축본이다.

보판 기유본: 정조 13년(1789, 기유)에 문집에 서문이 없어 이현경이 서문을 짓고 김유가 지은 「점필재선생연보」문인록을 교정하여 편입한 보판본이 기유본이다.

기사본: 고종 6년(1869, 기사)에 점필재의 13대손 김식에 의하여 시집 8권, 문집 2권 및 연보문인록 부록으로 편성된 혁신판, 삼차 중간본이 기사본이다.

보판 임진본: 고종 29(1892, 임진)에 기사본의 내용을 수보하고 노론의 영수 연재 송병선의 발문을 붙인 보판본이 임진본이다.

보판 정사본: 1917년 정사년에 대구 재전당서포 김기홍이 교정하여 간행한 보판본이 정사본이다.

보판 무인본: 1938년 무인년에 후손 김태진의 발문만을 덧붙인 보판본이 무인

본이다.

각 판본의 異同은 조선조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각 판본끼리의 정밀한 대조를 통해 그 편린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판본과 별도로 유행한 회당고란 점필재의 초기 시집은 점필재의 초기문학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는 문헌이다. 문학연구의 선결과제인 문헌연구의 필요로 인해 그 목판본의 내력을 밝히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자료의 한계상 담보를 면치 못해 유감이다.

그러나 회당이란 호가 점필재의 사육신계승의식을 반영하고 회당고란 시집은 점필재의 청년 시대의 열정을 투영하는 작품집이란 것을 밝힌 것도 보람있는 작업이었다.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 새롭게 점필재의 사상과 문학, 생애의 전모가 종합적으로 구명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林榮澤, “佔畢齋集 解題.” 『李朝名賢集』 2.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7.
- 民族文化推進會, 『佔畢齋集』, 『韓國文集叢刊』 제12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8.
- 金光洙, “佔畢齋先生 文集研究.”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金光洙, “佔畢齋先生 文集研究.” 『漢文學研究』 제7집(1991)
- 吳世玉, “佔畢齋集 解題.” 『韓國文集叢刊解題』 제1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1.
-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政策과 文集編刊.”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 李東歡, “梅堂稿解題.” 『栖碧外史海外蒐佚本』 73.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 啓明漢文學研究會, “佔畢齋先生全書解題” 『佔畢齋先生全書』, 학민문화사 1996.
- 姜大杰, “佔畢齋集解題.” 『國譯佔畢齋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7.

- 金永峯. “梅堂稿에 나타난 金宗直의 初期 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1999).  
정상균. “김중직의 조의제문 연구.” 『고시가연구』(2002).  
玉泳叟. “책판목록을 통해본 조선시대 善山지역의 목판인쇄문화연구.” 『서지학 연구』 제34집(2006. 9).  
金侖壽. “南冥集의 冊版과 印本의 系統.” 『南冥學研究』 제2집(1992.12).

K C I

к с і